

# “리니지 의존 벗고 모바일 캐주얼로 2030년 매출 5조 목표”

## 엔씨소프트 경영전략 간담회

기존 IP 안정적 현금흐름 담당  
신규 IP는 자체개발·퍼블리싱  
지난해 모바일 캐주얼 센터 신설

엔씨소프트가 ‘리니지 의존구조’에서 벗어나겠다는 전략을 공식 선언했다. 모바일 캐주얼 게임을 포함한 새로운 사업 포트폴리오를 구축해 2030년 매출 5조원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다.

엔씨소프트는 12일 경기 성남 판교R&D센터에서 ‘2026 엔씨 경영전략 간담회’를 열고 중장기 성장 전략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에는 박병무 공동대표와 홍원준 CFO, 아널 체만 모바일캐주얼센터장이 참석해 향후 사업 방향과 실행 전략을 설명했다.

박병무 엔씨소프트는 공동대표는 “게임 하나의 성공 여부에 회사 실적이 좌우되는 구조에서 벗어나겠다”며 “2030년 매출 5조원과 자기자본이익률(ROE) 15% 이상을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2년 전만 해도 회사 실적은 특정 게임의 성공과 실패에 크게 영향을 받았다”며 “지난 2년은 체질 개선과 개발 체계 정비를 통해 턴어라운드 기반을 마



아널 체만 모바일캐주얼센터장(영상 이미지), 박병무 공동대표, 홍원준 CFO(왼쪽부터)가 12일 경기 성남 판교R&D센터에서 열린 ‘2026 엔씨 경영전략 간담회’에서 중장기 성장 전략을 발표하고 있다. /엔씨소프트

련한 시기였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는 예측 가능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모델을 구축하는 것이 핵심 목표”라고 강조했다.

엔씨는 이를 위해 ▲레거시 IP 고도화 ▲신규 IP 확보 ▲모바일 캐주얼 사업 확대를 3대 핵심 성장 전략으로 제시했다.

먼저 기존 IP는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담당한다. ‘리니지’, ‘아이온’, ‘블레이드 앤소울’, ‘길드워2’ 등 주요 IP의 라이브 서비스를 고도화하고 서비스 지역 확대와 스핀오프 신작 개발을 통해 연간 약 1

조5000억원 규모의 안정적인 매출 기반을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신규 IP 확보를 위해서는 자체 개발과 퍼블리싱을 동시에 추진하는 ‘투 트랙 전략’을 실행한다. MMORPG뿐 아니라 슈팅, 서브컬처, 액션 RPG 등 다양한 장르로 포트폴리오를 확대하고 글로벌 시장 공략도 강화한다.

현재 자체 개발 10종 이상과 퍼블리싱 6종 이상의 신작 라인업을 확보한 상태다. 북미 시장에서는 택티컬 FPS 게임 ‘디펙트’의 글로벌 퍼블리싱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전략 발표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모바일 캐주얼 게임 시장 진출이다. 엔씨는 글로벌 게임 시장에서 모바일 캐주얼 장르가 전체 매출의 30% 이상을 차지하지만 국내 대형 게임사의 진출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이었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를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고 지난해 모바일 캐주얼 센터를 신설했다.

아널 체만 모바일캐주얼센터장은 “캐주얼 게임은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이 핵심이며 성공 가능성이 검증된 프로젝트만 빠르게 확장하는 구조가 중요하다”며 “엔씨는 이미 데이터 기반 모바일 캐주얼 사업을 실행할 시스템을 구축했고 이를 기반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빠르게 성장할 준비가 됐다”고 말했다.

글로벌 개발 네트워크 구축도 진행 중이다. 베트남 리후후, 슬로베니아 무빙아이, 국내 스프링컴즈 등 개발 스튜디오를 확보했다. 특히 최근엔 독일 모바일 플랫폼 기업 저스트플레이를 인수했다. 약 2억200만달러를 투자해 지분 70%를 확보한 것. 사용자 보상 기반 플랫폼을 통해 게임 이용자 유지율을 높이고 광고 효율을 개선하는 구조로 모바일 캐주얼 사업의 핵심 엔진 역할을 맡게 된다.

글로벌 개발 네트워크 구축도 진행 중이다. 베트남 리후후, 슬로베니아 무빙아이, 국내 스프링컴즈 등 개발 스튜디오를 확보했다. 특히 최근엔 독일 모바일 플랫폼 기업 저스트플레이를 인수했다. 약 2억200만달러를 투자해 지분 70%를 확보한 것. 사용자 보상 기반 플랫폼을 통해 게임 이용자 유지율을 높이고 광고 효율을 개선하는 구조로 모바일 캐주얼 사업의 핵심 엔진 역할을 맡게 된다.

향후 모든 모바일 캐주얼 스튜디오는 엔씨의 중앙 데이터 플랫폼과 연결된다. 이를 통해 이용자 확보(UA)와 광고 효율 분석(ROAS), 라이브 운영(LiveOps), 콘텐츠 최적화, AI 기능 등을 통합 관리할 계획이다.

체만 센터장은 “캐주얼 게임은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이 핵심”이라며 “지표가 좋으면 확장하고 그렇지 않으면 중단하는 방식으로 프로젝트를 운영한다”고 설명했다.

엔씨는 글로벌 시장 확대 전략도 함께 추진한다. 기존 한국과 대만, 일본 중심 시장에서 벗어나 북미와 유럽, 동남아 등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하고 중남미와 중동, 인도 등 신규 시장 진출도 검토하고 있다.

AI 기술 활용도 강화한다. 엔씨는 외부 AI API와 내부 AI 조직을 활용해 개발 생산성을 높이고 제작 효율을 개선할 계획이다.

박병무 대표는 행사 말미에 “오늘 발표한 전략은 반드시 실행하겠다는 의지로 봐달라”며 “올해 약속한 목표부터 차근차근 실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최빛나 기자



svtina@metroseoul.co.kr metro

## KT, 기업 안정적 인터넷 사용 지원한다

### 제로트러스트 보안 적용 서비스 ‘플렉스라인 ZTNA’ 선포

KT는 제로트러스트(내·외부 구분 없이 모든 접속요청을 잠재적 위협으로 간주하고 철저히 검증하는 것) 보안을 적용한 기업인터넷 서비스 ‘플렉스라인 ZTNA(제로 트러스트 네트워크 액세스)’를 출시했다고 12일 밝혔다.

플렉스라인은 회선과 인터넷프로토콜 IP, 장비, 운용 관제 등을 지원하는 기업인터넷 서비스다. 소프트웨어 기반 광역 네트워크(SD WAN) 기술을 적용해 기업의 업무환경과 네트워크 사용 현황을 분석하고 대역폭을 유연하게 조정한다. 국내외 클라우드 사업자와 원하는 용량으로 직접 연결할 수 있으며 방화벽과 가상사설망(VPN) 등 보안 기능도 제



KT가 제로트러스트를 적용한 기업인터넷 ‘플렉스라인 ZTNA’를 출시했다. KT 직원들이 ‘플렉스라인 ZTNA’를 소개하고 있다. /KT

공한다.

이번에 출시한 플렉스라인 ZTNA는 기존 플렉스라인 서비스에 제로트러스트 보안 개념을 적용한 것이 특징이다. 기존 VPN 환경이 한 번 로그인하면 이후 접속을 지속적으로 신뢰하는 방식이었다면 플렉스라인 ZTNA는 사용자와

단말, 애플리케이션에 대해 접속시점마다 권한을 검증한다. 인공지능 기반 탐지 기술을 활용해 접근 권한을 확인하고 안티바이러스 설치 여부나 보안 패치 상태 등 단말 보안 수준에 따라 접근을 제어한다.

KT는 기업 네트워크 보안 강화를 위해 양자암호 기술을 적용한 장비 라인업도 추가했다. 이를 통해 금융업 등 높은 수준의 보안이 필요한 기업도 안정적으로 기업용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클린존과 AI 메일 보안 등 KT 보안 솔루션도 함께 제공한다.

플렉스라인은 올해 대한민국 퍼스트 브랜드 대상에서 기업용 인터넷 부문을 수상했다. KT는 서비스 기술력과 기업 고객 신뢰도를 동시에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최빛나 기자

## 넥서스-머소, 블록체인 게임 생태계 확대

크로스 생태계 내 AI 할부결제 연동

넥서스는 지난 11일 인공지능(AI) 기반 디지털 자산 금융 인프라 기업 머소와 ‘크로스(오픈 블록체인 게임 플랫폼)’ 생태계 확장과 결제 인프라 고도화를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협력은 넥서스의 온체인 게임 플랫폼과 머소의 AI 기반 할부 결제 기술을 결합하기 위해 추진했다. 양사는 기술 연동을 넘어 공동 게임 소싱과 사업 확장을 포함한 협력 모델을 구축할 계획이다.

양사는 우선 크로스 생태계 내 게임에 머소의 AI 기반 무이자 할부 결제 기능을 연동한다. 이를 통해 이용자는 고가 게임 아이템이나 한정판 NFT, 프리미

엄 패키지 등을 할부 방식으로 구매할 수 있다.

넥서스는 웹3 게임 체인 기술과 머소의 결제 솔루션을 결합한 패키지를 게임 스튜디오에 제안해 크로스 생태계 온보딩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머소의 AI 리스크 평가 시스템은 디지털 자산 가치를 실시간 분석해 결제 위험을 관리한다. 이 기술은 넥서스의 크로스페이와 크로스허브 등 인프라와 연계해 운영할 예정이다.

머소는 디지털 자산과 웹3 게임을 위한 AI 기반 금융 인프라 기업이다. 2023년 설립 이후 디지털 자산 신용 인프라를 구축해 왔다. 회사 측은 결제 옵션 도입 이후 결제 전환율이 최대 40% 증가하고 평균 거래 규모가 60% 이상 확대되는 성과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최빛나 기자

## LG CNS, 환경·특성 반영 기업용 AI 도입

### 팔란티어와 전략적 파트너십

LG CNS가 미국 인공지능(AI) 소프트웨어 기업 팔란티어테크놀로지스와 협력해 인공지능 전환(AI) 사업 확대에 나선다.

LG CNS는 지난 11일 미국 현지에서 열린 팔란티어 AIPCon 행사에 앞서 팔란티어와 전략적 파트너십 계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체결식에는 현신군 LG CNS 최고경영자와 알렉스 카프 팔란티어 창업자 겸 최고경영자 등 양사 주요 경영진이 참석했다.

팔란티어는 기업 내 분산된 데이터를

통합하고 정제해 데이터 기반 운영 체계를 구축하는 파운드리와 통합 데이터 환경에 생성형 AI를 결합해 기업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AIP(인공지능플랫폼)를 제공하는 기업이다.

LG CNS는 이번 협력을 통해 팔란티어의 파운드리와 AIP를 국내 기업 환경에 맞춰 제공할 계획이다. 고객사의 데이터 환경과 산업 특성을 반영해 기업용 AI 플랫폼 도입을 지원한다는 설명이다.

이를 위해 LG CNS는 팔란티어 사업 전담 조직인 FDE 전방배치 엔지니어링 조직을 신설한다. 이 조직은 팔란티어와 협력해 제조 에너지 전자 물류 등 다양



LG CNS CEO 현신군 사장(왼쪽)과 팔란티어 CEO 알렉스 카프가 전략적 파트너십 계약 체결식에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LG CNS

한 산업 분야에서 AI 적용 과제를 발굴하고 실행한다.

LG CNS는 LG그룹 계열사를 중심으로 사업 확장에도 나선다. 회사는 이미 LG 계열사 한 곳의 품질 관리 영역에서 파운드리와 AIP 적용을 위한 개념검증을 완료했다. /최빛나 기자

## 네이버페이, NFT 기반 커뮤니티 기능 추가

### ‘Npay 월렛 커뮤니티’ 선포 오픈형 ‘채널’, 폐쇄형 ‘인증방’

네이버페이는 비수탁형 디지털 자산 지급 서비스 ‘네이버페이(Npay) 월렛’에 대체불가능토큰(NFT) 기반 커뮤니티 기능을 추가한 ‘Npay 월렛 커뮤니티’를 출시했다고 12일 밝혔다.

Npay 월렛은 디지털 아트 형태의 NFT를 보관할 수 있는 디지털 자산 지급 서비스다. 아트 NFT뿐 아니라 티켓과 인증서 등 다양한 유형의 NFT를 보관할 수 있다. 이번에 출시한 커뮤니티 서비스는 NFT를 기반으로 사용자 간 교류 기능도 제공한다.

커뮤니티는 오픈형 ‘채널’과 폐쇄형 ‘티켓 인증방’으로 구성했다. 채널에서는 제주도 디지털 관광증 ‘나우다’와 네이버 스트리밍 서비스 ‘치지직’ 게임 방송 등 특정 행사나 주제를 중심으로 이용자들이 소통할 수 있다. 이용자는 보유한 아트 NFT를 인증해 게시글을 작성할 수 있다.

티켓 인증방은 특정 행사 티켓이나 관련 NFT 보유자만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이다. KPGA 등 스포츠 이벤트 관련 NFT 보유 이용자만 입장해 소통할 수 있다. 동일한 공연이나 행사에 참여한 이용자 중심으로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최빛나 기자